윤동주 시에 대한 단상

나희덕 · 조선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교수

내가 다니던 대학 도서관 4층 참고 열람실 벽에는 윤동주 시인의 흑백사진이 걸려 있었다. 이십 대 전반기를 그 액자 바로 앞자리에 앉아 책을 읽고 시를 쓰며 보냈다. 마치 따뜻한 볕을 쬐는 것처럼, 서늘한 그늘에 앉아 있는 것처럼, 그의 선량한 눈빛과 온화한 미소가 그 시절의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人生은 살기 어렵다는데 / 詩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 부끄러운 일"('쉽게 씌어진 시')이라고 노래한 그의 부끄러움이 나의 부끄러움을 위로해주던 시절이었다.

도서관 안까지 경찰이 들어와 최루탄을 쏘아대던 시절, 그래도 내 안에 시에 대한 갈망이 그 불씨를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그로부터 받은 맑은 기운 덕분이었을 것이다. 80년대를 보내는 동안 그의 사진은 나에게 기쁘나 슬플 때나 찾아가던 '성문 앞 보리수' 같은 곳이었다. 어떤 시인이 80년대를 회고하면서 자신이 사랑한 것은 운동이 아니라 운동가였다고 말했던 것처럼, 나는 시인 윤동주에 대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사랑한 것은 윤동주의 시가 아니라 윤동주의 이미지였다고.

그러나 20대를 벗어나면서 나는 윤동주의 시가 지닌 '맑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하늘을 우러러 /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 나는 괴로워했다"('序詩')와 같은 도덕적 염결성이 인간

에게 과연 가능한 것일까 하는 회의가 수시로 찾아들었다. 또한 "괴로웠던 사나이, /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 처럼 / 十字架가 許諾된다면 // 모가지를 드리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 어두어가는 하늘 밑에 / 조용히 흘리겠습니다"('十字架')와 같은 비장한 순교 의식이 현실에서 얼마나 무력하게 무너져 내리는가를 몇 번이고 목격해야만 했다.

독자로서뿐 아니라 시인으로서도 나는 윤동주를 어느새 청산이나 극복의 대상처럼 여기고 있는 듯했다. 비평가들이 내 시에 대해 말할 때 '따뜻함', '건강함', '맑음'이라는 수식어들이 자주 등장하곤 했는데, 나는 그것을 미덕보다는 미달의 표지로 받아들였다. 내적 분열을 겪으면서도 쉽사리 그 분열과 어둠을 드러내지 못하는 스스로를 보면서 대학 시절 윤동주의 빛이 아직도 완강하게 남아 있음을 확인하곤 했으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그토록 호흡 깊숙이 끌어들이고 싶었던 그의 '맑음'이 날이 갈수록 단순하고 왜소하게만 보였던 것은 스스로에 대한 불만 때문이었던 것 같다. 그 불만의 힘으로 나는 오래도록 빛을 등지고 걸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길을 걷다가 불현듯 막막함에 사로잡혀 걸음을 멈추었다. 발 아래 낯선 그림자 하나가 드리워져 있을 뿐, 그 길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내가 어디쯤 와 있는 것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문득 참으로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림자를 바라보며 하염없이 길 위에 서 있었다. 영혼의 검은 형제인 '그림자'와의 만남, 그것은 내 문학에 대한 '불만'이 초대한 '불안'이라는 새로운 손님을 맞아들이는 순간이었다. 융은 무의식 속에서 자신의 이면(裏面)을 발견하는 첫 단계인 '그림자'와의 만남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 모든 사람은 그림자를 지니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개인의 의식 활동 가운데서 구체화되는 것이 적으면 적을수록, 더 검고 밀도 짙게 나타난다. 그러나 그림자는 단순히 열등하고, 원시적이며, 적합하지 못하고 또 어색하지만, 결코 완전히 나쁜 것이 아니다. 그림자

는 어떤 면에 있어서 인생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고 아름답게 하는,
유치하지만 원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 말처럼 그림자란 의식 아래 억압되어 있거나 미분화된 어둠을 말하지만, 내면을 탐구하기 위해 그것의 발견은 필수적이기까지 하다. 내 안에 그토록 '수많은 나'가 동거하고 있음을 늦게야 깨달았고, 나는 비로소 내면 속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윤동주의 시를 다시 읽어보니 새로운 면모가 읽혔다. 윤동주를 단순한 항일 시인으로 자리매김하려는 시도가 그의 문학적 본질과 얼마나 동떨어진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른 듯하다. 그러나 순결한 정신의 소유자로서 그가 지녔을 윤리적 고뇌에 주목하는 견해 역시 윤동주에 대한 통합적 이해에 도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 점에서 나는 윤동주의 내면적 갈등을 굳이 의식의 차원에만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아니, 자기 성찰적인 성격이 강한 내향적 자아에게 있어 의식과 무의식의 교접은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며, 그런 무의식의 소리들을 부활시켜 내는 것은 윤동주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능케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제 나는 윤리적 성찰 이면에서 은밀하게 진행된 자기 분열의 과정을 통해 한 나르키소스가 죽음을 향해 걸어간 무의식의 발자국 소리를 듣는다.

故鄕에 돌아온 날 밤에
내 白骨이 따라와 한방에 누웠다.

어둔 房은 宇宙로 通하고
하늘에선가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온다.

어둠 속에서 곱게 風化作用하는
白骨을 들여다 보며
눈물 짓는 것이 내가 우는 것이냐
白骨이 우는 것이냐

아름다운 魂이 우는 것이냐

-'또다른 故鄕' 중에서

엎에 나란히 누운 백골의 존재, 그것은 자기 안에 사는 또 하나의 자아이면서 존재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스스로를 너무 많이 들여다보았기 때문에, 또는 너무 일찍 보아 버렸기 때문에 그토록 일찍 세상을 떠난 것은 아니었을까. 그렇게 어둠과 친숙해지면서, 그럼에도 끊임없이 아침을 기다리면서, 그는 부단히 '또다른 故鄕'으로 쫓기는 사람처럼 가버린 것은 아니었을까.

이따금 내 문학이 시작된 자리를 더듬어 가다 보면, 나는 영락없이 윤동주라는 "信念이 깊은 으젓한 羊"('힌그림자')과 마주치게 된다. 윤동주는 우리에게 이십 대의 젊은 영혼으로 남아 있다. 그러나 요즘 그의 시를 생각하면 그의 시 역시 내 속에서 나이를 먹어 가고 있는 것 같다. 스무 살의 나로 하여금 시를 통해 무언가를 생각하게 하고 사랑하게 한 선한 눈동자. 그의 '맑음'은 여전히 내가 도망쳐야 할 그늘인 동시에 영영 도달할 수 없는 영토인지도 모른다.